

사역에 부름받은 여성들

연합감리교회 6과 성경 공부

교사용 교재



저자

딜리아 햄버슨, 기독교학 종교 교육자
카밤바 키보코 목사, 성서학자 (박사)
레이시 워너 목사, 역사학자 (박사)
M. 린 스캇 목사, 정리/편집

발행처

연합감리교회

총회여권신장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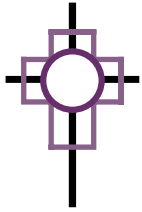
협찬
연합감리교회

총회고등교육사역부

번역: 박찬경 (Chan Gillham)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사역에 부름받은 여성들

연합감리교회 6과 성경 공부

교사용 교재

표시된 곳을 제외하고는 NRSV 성경을 사용함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학생용교재의 서문을 보시면 목차와 부록, 그리고 저자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이 자료의 사용법

이 교사용 자료에는 수업에 도움이 될 학습과제와 짧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이디어나 자료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에 있는 학습활동, 질문, 그외의 활동들을 학생들에게 적합한 것으로, 그리고 시간도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든 활동을 있는 그대로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 교사용 교재는 학생들이 수업에 오기 전에 학생용 교재를 읽고 온 것을 전제로 하고 씌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 학생용 교재 일부를 함께 살펴보고, 학생들과 함께 토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공부 시간이 한 시간 이상이면, “추가 성경공부”를 함께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주초 부터 성경공부를 가르칠 준비를 하시고, 교사로서의 생각과 마음을 준비해 주십시오. 각과를 준비할때 기도를 하며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십시오.

학생들을 파악하십시오

우리는 흔히 어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배우는 방법도, 어린 아이들과 똑같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은 그냥 들으면서 배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부 시간 중에 낙서를 하거나 발장단을 맞추거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 사고하거나 주제에 관해 어떤 의견을 발표하면서 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을 먼저하고 난 후에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면, 말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쉽게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발언할 기회를 주려면 소그룹으로 나누거나, 옆에 있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과 같이 질문에 대해 토의하라고 하십시오.

분위기 조성

각과를 공부할 때마다 촛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놓으십시오. 주제를 반영하는 어떤 물건, 아니면 단순히 촛불을 하나 켜놓은 테이블도 좋습니다. 촛불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만약 공부 도중에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예수님이 계셨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되면, 촛불을 꺼다가 다시 켜야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교실이 깨끗한가 점검하십시오. 더러운 교실은 학습에 방해가 됩니다. 의자를 원형이나 반원으로 놓는 것은 딱딱하지 않고 친숙한 분위기로 참석자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사용하라고 제안된 자료들을 가지고 오십시오. 수업 시작할 때 하는 학습 활동이 있을 때는 그 활동 안내를 써서 벽에 붙여 놓거나 칠판에 적어둡니다.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제 1과

아웃사이더(외부인)-인사이더(내부인)

주제

종교적, 기독교적으로 볼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는 누구입니까? 마태복음의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아웃사이더-인사이더”의 사회적 경계를 넘어 누구나 환영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초대

아웃사이더 (outsider, 외부사람)처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에 들어가 있는데 혼자 밖에 있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아웃사이더였던 가나안 여인에게 도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누가 외부에 속하고 누가 안에 속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보여 줍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5:21-28

준비물

종이, 크레용,연필/펜, 조그만 방울들을 담은 바구니, 리본 스트리머 (막대기 끝에 리본이 달린것), 찬송가, 핀 (혹은 리본을 방울에 달 수 있는 도구), 성경책

학습 활동

- 참석자들이 들어올때, 각 사람에게 종이와 크레용을 주고, 아웃사이더처럼 느꼈을 때, 따돌림을 당했을 때, 혹은 흔히 말하는 “왕따”를 당했을 때를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쓰라고 하십시오
- 참석자들이 그림/글을 서로 볼 시간을 주십시오. 사람이 많으면, 옆의 사람들에게 서로 보이라고 하십시오.
- 성경말씀을 간단히 살펴보십시오.
- 학생용 교재 7쪽을 보시고,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과 말씀하실때 유대의 전통을 깨신 것을 살펴보십시오.
- 참석자들에게 눈을 감고 아래의 말을 묵상해 보라고 하십시오:

당신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상상하십시오. 군중들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멈춤) 예수님이 당신을 무시하실때 어떤 느낌입니까? (멈춤) 귀신들린 것 같은 당신의 딸을 생각해 보십시오. 딸은 스스로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딸과 같이 사는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딸의 행동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을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종종 당신의 등뒤에서, 당신이 무슨 죄를 졌길래 당신 딸이 귀신들렸냐고 수근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때로는 당신도 어떤 때는 왜그럴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별을 받을 만한 죄를 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멈춤) 마음 속에 어떤 감정을 느끼니까? (멈춤)

예수의 제자들이 당신을 쫓아보내려 하고 예수께서 자신은 이스라엘의 사람들만을 위해 보내졌다 할때 당신은 거의 희망을 접습니다. 그러나 다시 새로운 용기를 냅니다. 예수님이 도우시도록 설득할 수 있습니까? (멈춤) 지금 감정은 어떻게 됩니까? (멈춤)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자, 이제 상상의 땅을 떠나 당신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이것과 비슷하게 자신이 아웃사이더라고 느꼈습니까? (멈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실 시간조차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생각을 극복하셨습니까? (멈춤)

- 참가자들에게 눈을 뜨라고 하시고 명상 중에 느꼈던 감정을 나눌 사람이 있나 물어보십시오.
- 다음과 같이 말하십시오: 가나안 여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인사이드-아웃사이더” 패러다임을 건설적으로 도전할 기회를 놓친 적은 혹시 없습니까? 이 여인의 끈질김은 건설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성차별, 식민주의, 혹은 인종차별주의 등의 관점에서만 선교를 해석하는 불의한 점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무엇인가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이 여인은 도전을 함으로써 마음 깊숙히 소망하던 바를 얻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속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까?

참가자들에게 그들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쓰라고 하십시오. 이것을 집에 가지고 가서 성경의 마태복음 15:21-28 갈피에 끼워 넣으라고 하십시오.

-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 둘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 가르침에 대해 살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5:21-28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구에게나 주신다고 선포한 가나안 여인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마태복음 28:19의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가나안 여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와 어떻게 비슷한지 살펴보십시오.

예배

예배 시작때, 작은 방울들이 든 바구니를 돌리면서 방울을 한개씩 집으라고 하십시오. 참가자들에게 그 방울을 보면서 그들이 아는 믿음 좋은 여성을 생각하며, 방울에 그 이름을 주라고 하십시오. 찬송을 부르며 방울을 리본에 핀으로 고정시키고, 그 여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했고 그녀의 믿음을 나눴는가를 생각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시간에 그 방울을 부드럽게 흔들라고 하십시오.

찬송: “옳은길 따르라” (새찬송가 516장)

찬양하는 대신 찬송가의 가사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기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하여 자신의 믿음을 남들과 나누어 온 여성들을 위한, 또한 “아웃사이더-인사이더” 식의 삶에 도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제2과

부르심

주제

세례를 받은 모든 기독교인은 부름을 받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초대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부르심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응답합니까? 우리들은 공동체의 도움없이도 무릅쓰고 그 부름을 따릅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보다 더 잘 감지할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의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용기를 주니까?

성경 말씀

요한복음 4:1-42; 사도행전 2:42-47

준비물

여러가지 경험을 적은 종이, 큰 종이, 매직마커, 가위, 찬송가, 성경책

학습 활동

- 우리의 경험이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는가 토의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리스트를 (그 외에도 원하는 경험을 첨가) 미리 프린트해서 잘라놓았다가, 두 학생당 한장씩 나누어 주십시오. 짝이 된 두 사람이 받은 종이에 적힌
그 경험이 어떻게 공동체/가정/교회 안에서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를 토론했습니다.
예배 주일학교 공부시간 공부그룹들 같은 운동을 하는 어린이들
정원가꾸기 커피샵 (혹은 다른 좋아하는 만나는 장소) 카드놀이 운동경기—관람자로서
운동경기—선수로서 살아가면서 축하하는일들 (생일, 결혼, 세례 등등) 학교모임들
- 큰 그룹으로 모여서 발견한 것들에 대해 얘기 나눈다.
- 다음과 같이 말하십시오: 자,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한번도 편안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있는 것이 불편해서 그런 상황을 피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아마도 성경말씀에 나오는 여인이 아침 일찍 물뜨러 가는 심경이었을 것입니다.
- 학생들이 예수님 당시의 사마리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면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아안에 정착한 이후 그들의 땅은 북왕국 (후에 사마리아라 알려짐)과 남왕국 (후에 유다라고 알려짐) 둘로 나뉘었습니다. 북왕국은 게르심산을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남왕국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후에 대성전을 세웠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은 앗수르에 멸망당했는데, 앗수르는 여러 타지역의 사람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시켜 정착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타민족과 결혼하게 되었다. 히브리 종교는 유대교 안에서의 결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그 후 남왕국도 정복 당하고 핵심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유배지에서도 그들은 종교적 전통을 유지했고, 유다에 돌아 왔을 때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북쪽의 사마리아 자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반대했는데, 이것은 두 나라 사이의 분열을 더 심하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쪽의 갈릴리 지방 (남왕국에 속하나 사마리아의 북쪽에 위치)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가서 몇 마일이나 멀리 돌아서 사마리아를 통해 가는 것을 피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과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 학생용 교재에 나와있는 상가여자와 성경 속의 사마리아 여인의 비슷한 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피하고 있습니까? 사회 생활이나 종교에 관한 대화에서 여자들이 무시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 학생들에게 “설교자”의 정의를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학생용 교재 10 페이지에 이 우물가의 여인이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 최초의 전도자, 그리고 최초의 설교자라고 나온 것을 지적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서 정의된 설교자의 정의와 학생들이 내린 정의가 어떻게 다른지 토의해 보십시오.
- 학생들에게, 너무나 흥분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때가 있었나 물어보십시오.
약혼이라든가, 마음 졸이며 기다리던 아이의 탄생, 그들 자신이나 가족중 누군가가 이룬 업적, 새 직장, 새로운 발견 등등의 경험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이것과 그 여인이 경험했을 흥분과 비교해 보십시오.
- 질문: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받아들임으로써 어떻게 그녀의 삶을 바꿀 수 있었나요?
- 다음의 질문을 하시고 학생들의 답을 커다란 종이에 적은 후 나중에 잘라서 한 사람이 한개씩 갖게 하고, 폐회에배때 기도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나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에 대해 특별히 남들과 나누고 싶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 학생용 교재 12쪽에 있는 “역사적” 부분의 첫 단락을 읽으십시오. 학생들에게 연합감리교 찬송가를 주고 35쪽을 함께 봅니다. 새로 세례받은 사람에게 우리가 하는 서약을 같이 읽으십시오. 이 서약이 남자거나 여자거나 세례받은 사람은 모두 사역에 부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 사도행전 2:42-47을 읽으십시오. 학생들에게 초기의 감리교운동은 이 나눔의 개념을 강조했다라는 것을 말하십시오. 이것은 마커스 보그가 말하는 “연민의 정치”¹도 포함합니다. “자원을 공유한다”는 말은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충족되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도 서로 도와서 잘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원들을 공유함으로써 모든 이들이 그들의 재능을 바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합니까?
- 학생용 교재에 나오는 메리 보산켓의 이야기를 묵상해 보십시오. 교재 12페이지에 있는 질문이나 아래의 질문을 묵상하는데 사용하십시오.

1. 18세기 후반 당시 반문화적인 사역을 한 메리 보산켓에게서 어떤 용기가 발견됩니까?
2. 어떻게 이 여성은 교리를 논쟁하기 보다는 감리교의 경건운동과 정의사역을 실천하고자 했습니까? 그 행동이 가져 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3. 메리 보산켓의 끈질김과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여인의 끈질김을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4. 여성들이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거나 목회자가 되려 할 때 오늘날 어떤 용기를 보여주며, 어떤 벽을 넘어야 합니까?
5. 오늘날 교회에서 여성의 지도력을 장려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1 마커스 J. 보그, 기독교의 심장 (샌프란시스코, 하퍼, 2003), 142-143쪽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예배

찬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새찬송가 430)

찬송가를 부르는 대신 한 목소리로 가사를 읽어도 좋습니다.

공동기도: 종이에 쓴 대답을 자르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스도와 닮은 삶을 살아가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적은 답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공동 기도로 사용하겠습니다. 그 답을 하나씩 읽을 때마다 다같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남들과 나누라는 부름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대답을 칠판이나 큰 종이에 적어 놓으십시오.

기도: “하나님, 이 우물가의 여인과 다른 여인들이 보여준 용기와 기쁨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이라 기도하며 이 공동 기도를 마칩니다.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제 3과

여성의 정체성

주제

여성의 정체성은 이 세상 속에서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과 인정에 의한 정체성이 아니라, 틀에 박힌 사회적 관습이나 세상적인 역할로 흔히 정의되고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 전통 안에서, 우리는 하와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오늘날 이 사회의 여성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26-3:24; 출애굽기 38:8

준비물

종이, 크레용, 테이프, 종이를 만든 남자와 여자 모양, 찬송가, 성경책

학습 활동

- 수업 시작때, 학생들에게 종이에 그들이 들었거나 지금까지 알고있는 하와의 상징이나 광경을 그리라고 하십시오. 이것을 마친 후, 학생들에게 서로 그들 그림의 해석을 나누게 하십시오. 게시판이나 벽에 이것들로 플라주를 만드십시오. (나중에 더 첨가 할 수도 있습니다.)
- 학생들에게 성경이 처음에 영어로 씌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십시오. 신약성서는 헬라어로 씌여졌고 띄어쓰기나 구둣점이 없었습니다. 다음 문장을 몇몇 학생에게 주어 읽게 하십시오. 학생들에게 그 문장을 읽었을 때의 힘든점에 대해 말하게 하십시오. 그리고서 요한복음 8:12과 대조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구약성서는 히브리어로 씌여졌는데, 구둣점과 띄어쓰기가 없을 뿐 아니라 모음도 없음을 설명하십시오. 다음을 칠판이나 큰 종이에 쓰고, 학생 모두에게 읽어보라고 하십시오.

○ㅎ○↓↓↓↓○□기스↓↓↓↓기ㅅ기ㅎ□○○ㅅ○르르ㄷ

그리고서 시편 23:1을 보십시오. 이 경험을 통해서 번역자들의 업무를 이해 할 수 있겠는가 물어보십시오.

- 학생들에게 학생용 교재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는 부분을 살펴보고 이 성경과 해석 속에서 히브리어에 관해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물어보십시오. 각주 #15와 #16 그리고 용어를 찾아보게 하십시오.
- 중성(단어에 성별 구분이 없는) 단어/대명사가 거의 없는 언어인 영어로 번역하는 어려움을 보십시오. 학생들이 중성의 개념을 이해하기 쉽도록, 동물의 이름 중 성별의 구별이 없는 이름과 그런 구별이 있는 이름을 나열해 보라고 하십시오. 예: 닭= 암탉과 수탉(hen & rooster), 양= 암양과 숫양(ewe & ram). 말 = 암말과 숫말(mare & stallion), 사슴 = 암사슴과 숫사슴(doe & buck).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 미리 컴퓨터의 동의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돕는자” (조수, 조력자, 협동자, 동업자, 동료, 동반자)와 “조력자” (조수, 조연자, 돕는자, 지지자)를 찾아 보십시오. 이 단어들은 어떤 관계를 나타냅니까? 히브리어의 단어 ezer (엣저)의 여러 의미를 토론하십시오. 이 단어에 주종관계나 상호의존의 관계가 보여집니까?
- 두개의 창조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에, 성경은 과거에 실제로 일어난 역사 이야기라기 보다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이해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 것일 수도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성경에서는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는 “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봐야 합니다.
- 학생용 교재에 있는 “성경 말씀 묵상”의 질문으로 토론해 보십시오.
- 학생용 교재의 “추가 성경공부”의 “타락” 부분을 읽으십시오. 끝 부분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고통 속에서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학생들에게 질문 하십시오: 당신은 어려움을 통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 했습니까?
- 학생 교재의 “추가 성경공부”에 나오는 창세기 3:16과 히브리어 마살이라는 동사에 대해 토의하십시오. 이 성경구절은 종종 남성우월성을 증명하는 증거구절 (proof text)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같은 단어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설명하십시오. 전체맥락도 생각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프랜시스 E. 윌라드가 교회의 여성 지도력 개발에 이바지한 것에 대해 토의하십시오. 오늘날 학생들이 속한 교회에서, 혹은 지역사회의 기관이나 공동체에서, 어떻게 여성 지도력 개발을 위해 힘쓰는지에 대해 토의 하십시오.

예배

학생들에게 종이로 만든 (남자와 여자의) 두 사람 모양을 보여주세요. 남자는 할 수 있지만 여자는 못하는 활동이 있는지 토의해 보십시오. 학생들에게 사역 할때에 남자나 여자나 둘 다 같이 할 수 있는것을 남녀 모습의 종이에 적게 하십시오 (같은 활동을 남자 형상과 여자 형상 둘 다에 적습니다.)

이 종이 형상들을 하와의 해석때 만든 풀라쥬 위에 붙이시고 어떻게 남자와 여자 둘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하여 사역을 해야하고, 각자의 재능을 사용하고, 이 세상의 사역에서의 동반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 하십시오.

학생들에게 그들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되는 재능, 혹은 남이 지적 해 주는 재능이 어떻게 자신을 새로운 방향의 삶으로 가라고 도전하는지 생각해 보게 하십시오. 그들이 가진 달란트를 한 단어 혹은 한 구절로 해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권유하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그 재능에 대해 기도하라고 하십시오.

찬양: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새찬송가540)

찬송하는 대신 한 목소리로 가사를 읽어도 됩니다.

기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성별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당신과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치라고 도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서, 우리가 당신의 부르심에 잘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 아멘.

알림

학생들에게 제5과를 배울때, 3과에 있는 구약 부분 해석이 다시 필요하니, 이 3과를 계속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제 4과

탐구 ↔ 신앙/깨달음

주제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때로는 믿음을 통해서, 또 때로는 탐구를 통해서 그들의 소명에 헌신하는 생을 살게됩니다.

이 믿음과 탐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역하는 삶 속에서 함께 어우러집니다.

초대

여러분은 더욱 깊은 신앙을 가지고 실천을 하라는 도전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삶 속에서 더욱 강하게 실현해야겠다는 도전의 순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옛부터 지금의 시대까지 이 부름을 살아온 여성들을 축하합니다. “오십시오! 성별, 계급, 문화, 인종 등과 상관없이 단지 하나님의 자녀로 받은 세례에 힘입어 당신의 소명을 따라 사십시오.”

성경 말씀

학생용 교재 4과의 “성경 속의 여인들”을 보십시오.

준비물

큰 종이, 매직마커, 성경책, 찬송가, 학생용 교재 4과의 공동기도, 부록 1: 연대기

학습 활동

- 큰 종이에 마치 나무를 가로로 자른 면 같은 4개의 동심원을 그리십시오. 원과 원 사이에 공간을 남기십시오. 원의 한 가운데에다 학생들이 작은 그림이나 글을 쓰게 하십시오. 만약에 학생이 여섯명 이상일 경우, 한 그룹에 4~6명이 되도록 나누어서 각 그룹마다 큰 종이를 주고, 이 토론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않게 하십시오.

학생들에게 어렸을 때 신체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따뜻함을 느꼈는가에 대해 나누게 하십시오. 그들이 말하면서 그림이나 상징을 한가운데 있는 원에 그리게 하십시오. 교사 자신의 그런 경험도 얘기해 주십시오. 학생들에게 3-5분의 시간을 주십시오.

각 그룹의 누군가에게 중앙의 원에 “경험된 신앙”이라 쓰게 하십시오. 여기서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함을 설명하십시오. 지금 방금 서로 이야기한 것들이 경험된 신앙의 일부인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학생들의 따뜻함의 경험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토대가 됩니다. 이 신앙심에 포함되는 것으로 예배, 우리가 공부하면서 경험하는 활동, 자연 속에서의 경험등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그 다음 원 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도와 준 사람의 이름을 쓰게 하십시오. 이것을 하는데 약 2-3분 시간을 주고, 각 그룹이 그 원 안에 “관련된 신앙”이라고 쓰게 하십시오. 관련된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장을 도와 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한다고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 원에는 자기가 속한 그룹 멤버들과, 한때는 믿었으나 지금은 안믿는 것, 예를 들어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번개같이 벌을 주신다는 믿음 등에 대하여 서로 얘기 나누고 원 안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도록 하십시오. 이것을 하는것은 시간이 좀 더 걸릴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시간을 정해 이 활동을 멈추게 하고, 이러한 일들을 속으로 기억해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이 세번째 원 안에 “탐구하는 신앙”이라고 쓰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교재를 통해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성경 말씀을 파고들고, 저자들이 제공하는 배경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신앙(faith)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신조(belief)는 때때로 변할 수도 있는 것임을 설명해 주십시오.² 탐구하는 신앙심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시작되는데 바라건대 평생 지속 됩니다. 우리가 그릇에 대해 묻거나 탐색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이 사고한 것이 아니라, 남이 우리에게 말한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됩니다.

네번째 원에는 학생들에게 하나님과 무척 가까운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이름을 쓰라고 하십시오. 그들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원 안에 “소유한 신앙”이라 쓰십시오. 학생들에게, 우리가 질문과 탐구를 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하나님과의 관계)에 도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위협받지 않게 된다고 인식할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색 할 때, 각자에게 중요하고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길로 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신조를 가지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무를 수평으로 자른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느때는 자라는 것을 멈출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평생 동안 여러 모양의 신앙심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마치 나무의 나이트를 한개 잘라내면 나무가 건강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묘목인 작은 상수리 나무나 백년 묵은 큰 상수리 나무나 다 똑같이 상수리 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작건 크건 어느 정도의 신앙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신앙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 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 학생들에게 학생용 교재 21-22 페이지에 나오는 성경 속의 여인들을 살펴보라 하십시오. 그 여성들을 살펴보고 부록 1의 연대기도 함께 보십시오.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찾아보게 하십시오. 학생들에게 자신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하시고 그 이유를 말하고, 또 그 사람은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부름을 따랐나 이야기하게 하십시오.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학생교재 (22-24 페이지)에 나오는 역사적, 현대의 여성들을 찾아보게 하십시오.

예배

공동기도: 학생교재 24페이지에 있는 기도문 “하나님이 재능을 주십니다”를 사용합니다.

찬양: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새찬송가 232)

찬송을 부르셔도 좋고 가사를 한 목소리로 읽어도 좋습니다.

2 이 교재에서는 “신앙”(faith)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뜻으로 썼었고, “신조”(belief)는 단순히 무엇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 (의견이나 판단도 포함)으로 사용되었음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제 5과

깨어짐-온전함

주제

여성들의 지도력을 인정하는 것, 특히 여성안수는 교회의 신뢰성(trustworthiness)을 확인하는 본보기가 된다.

초대

연합감리교회는 성서적 역사적 이해를 통해 안수를 포함하여 여성의 온전한 권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다른 해석이 존재합니다. 여성의 역할과 정체성에 관한 성경 말씀 속에서 온전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7-12, 14:20-25, 14:33a-35; 디모데전서 2:11b-15; 갈라디아서 3:28

준비물

“우리 교회 안에서의 여성의 지도력”이라는 제목을 쓴 큰 종이 (큰 제목 아래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라는 세 칼럼을 만든다), 매직마커, 길다란 리본 혹은 털실 한 뭉치, 찬송가, 성경책

학습 활동

-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 올때, 각자 “우리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이라는 제목이 쓰인 큰 종이에 각 교회의 여성지도자의 이름과 하는 일을 적도록 하십시오. 학생들이 전부 모였을때, 리스트를 살펴보면서, 더 추가할 이름이 없는지 물어보십시오. (미리 지방회와 연회의 여성 지도자의 이름을 알아두었다가, 필요하다면, 이때 적어넣으십시오.)
- 이 여성지도자들을 위한 감사기도를 하십시오. 학생들이 자기들이 만든 리스트를 볼 수 있도록 “눈뜨고 하는” 기도도 무방합니다. 리스트에 적힌 여성 중 특별히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을 위해 학생들이 묵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 제3과에서 공부한 창세기에 나오는 두개의 창조이야기를 복습해 보십시오. 복습을 마치면서, 학생들에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라고 쓰여진 갈라디아서 3장28절을 같이 읽게 하십시오.
- 학생용 교재에 나오는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의 성경구절을 살펴보십시오. 29페이지의 “말씀묵상”에 있는 질문을 봅니다. 바울사도의 창세기 해석에 동의 합니까? 생각해 보신 다음에 갈라디아서 3:28을 다시 읽읍니다.
- 이 신약성서의 세 말씀은, 그들의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을 편지나 다른 방법으로 저자에게 원래 보낸 것에 대해 저자가 한 답장들입니다. 그러나 이 답장을 하게 한 원래의 편지들은 이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질문이 어떤 것이었는지, 또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학생들과 어떤 상황이었을지를 가정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십시오.
- 2천년전과 비교하여 오늘날에는 여성들이 어떤 다른 상황에 있는지를 함께 말해봅니다. (이혼 재혼등으로 합쳐진 가족, 교육받은 여성들, 맞벌이 부부, 싱글맘/싱글대디 가정, 남자가 더 육아에 책임을 지는 경우, 등등)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다른 믿음이나 습관 중에 오늘날에는 적용되지않고 성경이 쓰인 당시에만 적용되는것에 어떤것이 있습니까? (노예제도, 돼지고기 먹는것, 여자가 머리를 가려야 하는것, 여성 교육 무용론, 등등)
- 어떻게 우리가, 그냥 성별에 따라 우리 마음대로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지 토론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통적인 성(gender)의 역할에 맞게 우리를 사역에 불러주시기도 하고, 또는 문화적인 성의 역할과는 전혀 상관없이 불러주실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해 보십시오.

예배

학생들에게 일어나 원을 만들게 하십시오. 기다란 리본이나 털실 뭉치를 돌리면서, 각자 리본이나 털실을 잡으라고 하십시오. 잡고서, 원 속의 그 다음 사람에게 돌릴 때에, 그 사람에게, “(옆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당신의 재능을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하실때 축복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십시오.

찬양: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새찬송가 183)

찬송을 부르셔도 좋고 한 목소리로 가사를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제 6과

앞으로 나가며

주제

모든 이들을 사역에 부르시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라는 소명을 탐구하고, 도전하고, 선포합니다.

초대

예수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실천하시겠습니까? 여성의 경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동참합니까? 남성인 경우, 여성들이 계속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신실한 삶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마태복음 15:21-28; 마가복음 7:24-30; 마태복음 28:19

준비물

종이, 연필, 짜서만든 천, 큰 양초, 1956년도 총회 드라마 (부록 3) 복사한것, 역사적 연대기 (부록 1) 복사한것

학습 활동

-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올때, 그들의 (혹은 친한 친구의) 가족 중 젊은 여성의 이름과 관계를 적으라고 하십시오 (예를들어 메리-딸; 조디-조카; 실라-친구). 그들의 이름을 쓴 종이를 접고 곁에 본인의 이름을 써서, 교사가 미리 마련한, 짜서 만든 천과 초를 놓은 테이블 위에 놓게 하십시오.
 - 두 학생에게 마태복음 15:21-28과 마가복음 7:24-30을 그룹을 대표해서 읽으라고 하십시오. 각자 잘 듣고, 두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다르게 이야기 했는가를 알아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모두 눈을 감고, 교사의 말을 들으며 생각해보라고 하십시오.
1. 주인의 밥상 아래 앉아있는 개와 비교된, 아웃사이더로서 느꼈을 여인의 감정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멈춤)
 2. 가나안 여인은 자기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 높혀 말 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언제 아웃사이더-인사이더 패러다임을 건설적으로 철회시킬 기회를 놓친 적이 있습니까? (멈춤)
 3. 들어오시면서 이름을 쓴 젊은 여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들 중 어느 하나라도 배타적인 고정관념을 극복하는것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멈춤)
 4. 여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을 돕기 위해 기존관념을 벗어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멈춤)
 5. 눈을 뜨시고, 옆 사람과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나누어 보십시오
- 부록 3에 있는 드라마 (1956년 총회 낭독극)를 극본으로 읽으십시오. 파트를 나누어서 크게 읽으십시오. 읽고나서, 드라마에서 보여진 다른 관점들에 대해 토의하십시오. 이 투표가 완전히 남성 목회자들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 1956년도 총회 때의 드라마를 상기해 보십시오 (부록 3). 학생용교재에 인쇄된 사회원칙의 부분을 살펴보십시오.
 - 학생들에게, 1980년 연합감리교회의 중북부 지역총회가 마조리 매튜즈 목사님을 감독으로 선출했을 때, 그 분은 기독교 모든 교단을 통털어 최초의 여성 감독이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은 교회의 여러 분야에 여성 지도자가 있습니다. 개체교회나 연합감리교단이 어떻게 여성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1. 우리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지도자라고 봅니까? (예를 들어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인 남성, 재정위원회의 여성 위원, 성례를 집전하는 여성, 친교를 주관하는 남성 등)
 2. 예배 자료들이 (찬송가, 기도, 성경봉독, 신경, 주보) 남성과 여성이 사역의 동반자가 되는 것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혹은 어떻게 방해합니까?
 3. 여자목사님이 담임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성경 공부를 하시고 나서) 이제 이웃사람이 “왜 당신네는 목사님이 여자입니까?”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학생용 교재 (36쪽)의 “선언문”을 읽으십시오. 여성들에게 타인의 기대에 벗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부름에 이끌리어 응답한 그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예배

기도: 학생들에게 그들이 나눈 (혹은 그룹의 다른 멤버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이 젊은 여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한 방법임을 얘기해 주십시오. 젊은 여성들은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더욱 앞으로 나갈 용기가 생깁니다.

학생들에게 본인이 쓴 이름들이 적힌 종이를 이제 테이블 위에서 집어서 펴보게 하십시오. 거기에 적힌 이름을 조용히 읽고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께 이 젊은 여성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는 기도를 올립니다.

찬양: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새찬송가 211)

찬송을 하셔도 좋고, 가사를 한 목소리로 읽어도 좋습니다. 낭독하시는 경우, 다른 사람들이 각각 한 절씩 읽고 후렴 부분은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